

# 教会施設の 適正規模와 地域的 配置에 関한 研究

## A STUDY ON THE OPTIMUM SIZE AND REGIONAL LAY-OUT OF CHURCH FACILITIES

韓 圭 榮 / 忠北大学校 助教授

### I. 序 論

우리나라 대도시 교회중에는 회중석이 數千席 이상인 교회당이 늘어나고 있으며 신개발지에선 한 건물안에 열이나 넘는 교회가 자리잡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간단히 예를 들어 문제로 삼는 현대교회시설에 관한 현상에 대하여 본 연구는 「건축시설의 계획에 있어 필연적으로 직면하는 문제는 해당 건축시설을 어떠한 규모로 할 것인가」<sup>1)</sup>라는 점과 지역에 관련된 건물집단은 도시계획과 지역계획에서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sup>2)</sup>는 입장에서 접근하려고 한다.

시설의 규모산정은 需要人員을 예측할 때 가능하다. 그러나 本稿는 교회론적 조명하에 오늘날 개신교회의 支教會의 교인수를 검토함으로써 적정한 會衆席의 산출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려는 기초적 연구의 목적을 갖고 있다. 그리고 알맞은 예배시설의 규모는 커뮤니티 문제와 유관하다는 면에서 적절한 교회시설의 지역적 배치에 대해서도 그 계획의 기준을 세워 보려는 것이다.

이러한 고찰이 필요한 것은 한국에 참다운 교회상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 건축환경의 질적 향상이 요청되고 있으며 교회간의 均衡發展이나 건전한 커뮤니티의 조성을 위해서 적절한 교회시설의 규모나 지역적 배치에 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지역시설로서의 교회당의 규모나 배치를 위한 예비적 연구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규모 문제를 먼저 교리적인 범주에서 고찰하려는 논의적 전개가 전제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규모나 배치에 관계되는 교회시설의 여러 현상을 파악하고 이를 교회와 교회건축 사이의 이론적 근거에 따라 평가한 다음 계획의 기준을 유도하려는 체계로 구성된다. 論題중에서의 교회시설이란 支教會의 모든 시설을 포함하지만 예배시설이 특히 회중석의 규모가 교회시설의 규모에 결정적인 인자가 되는 의미에서 교회시설의 규모는 예배시설 또는 회중석의 규모로 局限시키기로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다음 단계의 연구에서 교회시설의 적정규모산정이나 지역적 배치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 II. 教会施設の 現象

「현대사회구조의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아마도 도시화 현상일 것이다.<sup>3)</sup> 이것은 인간환경의 급격한 변화중의 하나로 부각된 현상이다. 산업혁명을 그 起原으로 삼는 도시의 인구집중현상은 여러 요인에 의해 가속화되는 추세에 있다. 오늘날 세계인구의 반 정도가 전체지구면적의 10%도 안되는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4)</sup> 우리나라 도시인구도 급격히 팽창하여 1982년 10월

현재 도시 대 농촌의 인구비율은 74 : 26에 이르렀다.<sup>5)</sup> 인구의 도시집중은 농촌지역의 상대적인 인구감소를 유발시킨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Megalopolis)의 형성과 같은 이른바 종교도시 현상이 극도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과 같은 급격한 지역인구변화는 생활시설면에서도 역시 두드러진 문제를 연출하고 있고 이것은 도농간 문제의 범위나 형태에선 차이가 있으나 성격에 있어서는 동질성이다. 도시인구의 과밀은 지역시설의 규모나 배치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농촌인구의 過疏는 시설의 遊休나 荒廢를 초래하고 있다. 커뮤니티의 생활시설은 편의와 휴식을 통하여 인간의 定住環境을 만들어 주기 위해 건축된 것이지만 오히려 인간에게 역기능적인 존재로도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커뮤니티의 崩壞도 똑같은 맥락에서 歸結되는 문제이다. 전통적인 지역사회에 존재해 있었던 연대의식은 위와같은 도시화현상에 의해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도시의 집합단지계획에 있어 커뮤니티의 조성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으며 농촌지역사회의 커뮤니티像도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 있어 도시화 현상이 교회성

1) 鈴木成文外, 「建築計劃」金光文外譯, (서울: 兄弟社, 1977), p. 281.

2) James C. Snyder & Anthony J. Catanese, Introduction to Architecture,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79), p. 51.

3) 서울大学校 環境大学院, 「人間/環境間

題의 發見」(서울: 1975), p. 12.

4) 上掲書, p. 10.

5) 内務部, 「地方行政区域要覽」1983. 이資料에 의한 都市人口는 읍 단위까지의 인구를 集計한 것으로서 1982. 10 현재 총인구는 약 3,911만이었으며 도시인구는 약 2,890만이었다.

6. 한경철, 「韓國教会成長 어디까지 왔나」(서울: 삼영서관, 1984), p. 74.

7) Time, May 7, 1984의 p. 62에 의하면 여의도에 있는 The Full Gospel Central Church(순복음 중앙교회)의 교인수는 370,000명으로 보도되었고 이 교회측은 세계 第1의 會衆을 갖고 있다

장의 원인중 하나라는 것은 교회시설의 현상을 파악하는데 흥미로운 것이다. 교회자료에 의하면 급성장하는 교회들은 도시화 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집단 밀집화되는 아파트가에서는 교회들이 전도에 경쟁적으로 열기를 올리게 되었고 상당수의 아파트街의 주부들이 좋은 교제와 여가선용의 장소로 교회를 택할 마음을 갖게 되었고 교회는 유치원, 동창회, 어머니회, 반사회 등의 모임을 통해 전도의 문을 열었고 꽃꽂이, 요리강습, 건강관리, 주부대학 등을 통해 新興住宅街의 주민들 생활 깊숙히 침투되었으며 아파트에서 가장 많이 배달되는 선전이나 소개, 인쇄물 가운데 교회안내나 전도지가 수위를 기록할 정도였다. 아파트가의 교회들이 교회 차량으로 子女들이 학교가는것 까지 도와주고 쌀물품을 공동 購買해서 주민들의 생활을 돕기도 했다. 이만큼 한국교회는 신혼주택지에서 주민들의 생활속에 깊이 관계되어졌다」<sup>8)</sup>

위의 언급은 1970년대의 우리나라 도시화 과정속에 어떻게 교회가 성장했는가를 진단한 하나의 단면이다.

서울에 세계의 10대 교회중 첫번째? 세번째, 여덟번째 큰 교회가 있고 세계 제 1의 장로교회, 감리교회, 순복음교회가 있다는 것은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도 남는 것이다.<sup>8)</sup>

세계적으로 볼 때 도시화가 교회성장에 언제나 큰 영향을 미쳐왔느냐는 문제는 여러면에서 고찰해 볼 여지가 있으나 한국에서는 두드러진 현상의 하나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역사상 지금까지 세계교회를 주도해 온 西歐教會의 실태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교회와 대조가 된다. 현재 영국에 있어 가장 큰 교회는 어린이를 포함한 전교인이 1600명인 교회이고 그외에는 800명이 넘는 교회가 없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개신교로 30명이 모이는 교회는 큰 교회에 속한다. 16세기의 종교개혁자 칼빈(Calvin)이나 쓰빙글리(Zwingli)가 목회하던 스위스의 교회들이 오늘날 200명 미만의 교인들을 갖고 있다.<sup>9)</sup>

우리나라의 도시화 현상이 교인수의 증가만을 가져온 것은 아니다. 그것은

교회의 지역적 배치에도 큰 문제를提起하였다. 서울에는 「교회구」<sup>10)</sup>란 별명의 구까지 등장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은마상가 4층에는 열하나의 교회가 들어있음이 보도되었다. 이상가는 「교회백화점」이라는 아름답지 못한 별호<sup>11)</sup>를 갖고 있으며 「은마아파트」에서 도곡동 쪽으로 한 브럭을 더 가면 진달래 아파트단지<sup>12)</sup>가 시작되는데 그곳 교차로 가운데 서면 무려 열하나 되는 개척교회 중첩이 일직선 상으로 전개되기도 한다.<sup>13)</sup>

個教會가 성장할 때, 특히 교인수가 증가할 경우 교회건축에서 가장 먼저 대두되는 문제는 예배시설에 대한 것이다. 예배시설의 부족이 그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시설측에서의 부족은 사용자측에서는 교회건축환경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에 있어 교회성장에 비하여 교회시설이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기독교신자가 전국민의 25%에 불과하다는 사회적 배경과 個教會中心의 자유교회적 목회에 의한 전도활동이 크게 주요하여 需要側面에서의 교인수의 급속한 증가가 교회시설의 공급보다 늘 앞서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처럼 교회성장애의 관심과 꿈이 강한 목회자들은 이 지구상에 없으며 한국교회처럼 부흥하는 교회도 없다」<sup>14)</sup>는 말이 상식화 되었다.

여기에 도가 지나쳐 부정적인 면도 등장하였다. 근래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의 목회는 치열한 경쟁까지 결들여져 심지어는 기업경쟁을 연상케 할만큼 대단한 면을 보이기도 한다.<sup>15)</sup>

이러한 교인수의 증가에 따르는 예배시설의 부족문제는 이를 해결하려고 할때 일차적으로 採択하는 방법으로서 主日公禮拜回數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지방도시교회들의 주일 낮시간 평균예배회수는 2회로 나타났으며 도시지역 아파트 단지 주변의 교회들은 안정된 교회의 경우 3부예배가 보통이며 교회당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開拓教會들의 경

우에도 보통 2부예배가 실시되는 형편이다.<sup>16)</sup> 큰 교회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현상은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편이다.

「주일 낮 예배를 4~5부에 걸쳐 드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어떤 교회는 노인이나 노약자는 도무지 예배에 참석할 수 없을만큼 예배자석이 부족, 예배석 차지하기 경쟁이 과도해서 암사사건을 염려할 만큼힘드는 교회도 있었으며 교제란 아예 생각할 수조차 없게 되어 버렸으며 video시설이 되어 있어 교인수의 약 12~20%가 video실에서 예배를 드리며 차를 세워 둘 주차장시설이 되어 있는 교회는 거의 없었다」<sup>17)</sup>

미국의 United Methodist Church의 경우 교인 1인당 會衆席(강단포함)의 면적은 12SQ.FT. (1.1m<sup>2</sup>)로 규정<sup>18)</sup>하고 있는데 연 200명 이상 復興된 한국교인들의 경우 1인당 회중석 면적은 0.56m<sup>2</sup>정도로 나타났다.<sup>19)</sup>

도시화 현상과 지역시설, 커뮤니티의 부재, 도시화로 인한 교회성장, 개교회별 교인의 급속한 증가와 대형교회의 출현, 예배시설의 부족 등등이 의미하는 것은 自明한 것이다. 이러한 교회시설 내에서 생활하는 신자들의 영적상태를 진단해 보는 것은 대단히 요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바람직스럽지 못한 교회건축환경속에서 진정한 영적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지 심각하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 Ⅲ. 教會論과 禮拜室의 規模

교회시설은 교회의 회집장소로서 그 공간을 규정하는 이론적 배경은 무엇보다 먼저 기독교 신학과 관계된다. 실제로 신학적 배경에 따라 교회건축의 樣態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현대 기독교 신학의 중심을 교회론으로 보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교회사가들은 현대를 교회학 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다.<sup>20)</sup> 이러한 교회론에 대한 강조는 교회의 세상에 대한 사명과 선교를 중시한 새로운 潮流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시설의 본질을 규명하자면 교회의 사명보다 우선적으로 교회의 본질에 論學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고 했다.

8) 한경철, 「韓國教會成長 어디까지 왔나」(서울: 삼영서관, 1984), p. 24.

9) 上揭書, p. 21.

10) 「제 3의 물결 일으키는 교회개혁」, 「신앙세계」 1982년 4월호, p. 73.

記者는 江南區를 「教會區」라고 부르고

있다.

11) 上揭書, p. 72.

12) 上揭書, p. 71.

13) 上揭書, p. 72.

14) 한경철, 「韓國教會成長 어디까지 왔나」(서울: 삼영서관, 1984), p. 24.

15) 上揭書, p. 78.

16) 上揭書, p. 137.

17) 上揭書, p. 136.

18) J. D. Chiara, J. H. Callender (ed.), Time-Saver Standards for Building Types, (New York: McGraw-Hill Book Co.), p. 571.

예수께서 말씀하신 교회를 希臘語로 엑클레시아(Ecclesia)<sup>21)</sup>라고 나타내는데 이말은 「그의 주위에 회집하며 그를 자기들의 주로 공인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받아들인 무리에게 최초로 적용하신 것」<sup>22)</sup>이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교회를 성도의 교통(communio sanctorum)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교회의 외면적 조직보다 앞서는 의미를 갖고있다. 칼빈(Calvin)은 교회를 교부들과 같이 「성도의 교통」<sup>23)</sup>으로 보았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에 의하면 교회는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아래에 이미 하나로 회집되어 있거나 현재 또는 장차 회집되는 선택된 聖徒로 구성되는데 이는 無形의이라고 했다.<sup>24)</sup>

조직신학자 Louis Berkhof의 교회론에 따르면 지상에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무형교회(invisible church)와 유형교회(visible church)인 면을 다 내포하고 있다.<sup>25)</sup> 무형교회는 본질적으로 靈의이기 때문에 肉眼으로는 식별될 수 없다. 그러므로 時空間(time and space)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늘나라」와 같은 靈의空間이 있고 교회건축공간의 본질중의 하나가 거룩함의 표현에 있다고 보면 무형교회의 屬性이 교회건축과 무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유형교회(visible church)는 신자들의 신앙고백과 행위와 말씀과 聖禮에서 또는 외형적인 조직 등에서 可視的이다. 이 可視的이라는 면에서 교회건축은 유형교회와 물리적인 공간관계를 갖게되는 것이다. Roman Catholic Church가 교회의 본질을 유형적 조직체로서의 교회에서 찾은 것과 Protestant Church가 무형적이고 靈의인 성도의 교통에서부터 찾았다는 것은 대조가 되는 교회관이고 이 차이가 교회건축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觀點의 차이는 자연히 다음과 같이 더 진전하였다. Catholic Church는 ‘보이는 말씀’, 즉 성예를 중

심으로 儀式爲主의 공간에 치중하여 왔다. Protestant Church에서는 설교를 통하여 「들리는 말씀」(또는 보이지 않는 말씀)을 중심으로 非儀式的 공간을 강조하여 왔다. 이같은 概念은 예배공간의 특성뿐 아니라 예배실의 규모에도 큰 영향을 끼친 것이다. 可視距離와 可聽距離의 相關關係에서 볼 때 현대 예배실에서의 확성 시설과 같은 補助手段에 의해 성례위주의 예배실보다 설교위주의 예배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것이다. 더구나 특수한 교리를 강조하거나 교회지도자의 역량이 두드러질 때 단일교회로서 수십만의 회중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조직력이 강한 Roman Catholic Church가 통일된교회를 형성해 온데비해 Protestant Church는 많은 教派教會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교회시설의 지역적 배치에 역시 영향을 미친 것이다. Catholic Church가 정비된 교구제도에 의해 비교적 균등한 지역적배치를 이룬 것과 Protestant Church가 특히 한국의 도시에서처럼 무질서한 교회의 분포를 보이고 있거나 교회규모가 千差萬別인 것은 너무나 대조적이다.

교회의 사명 곧 교회가 수행하는 일에 따라서도 교회시설은 많은 영향을 받는다. 교회의 사명을 내적인 일과 외적인 일로 구분한다면 전자는 예배나 교육, 친교 등과 같은 일들을 포함하며 후자 곧 세상에 대한 일은 선교가 중심이 된다.

이들 각 사명에 대하여 교회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교회시설의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현대 서구교회가 자유주의신학의 흐름속에 예배보다는 교육이나 친교나 사회봉사 등등에 더욱 주력함으로써 예배공간이 사회적 공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縮小되고 있는 傾向이다.

이러한 차이는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서는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유대교에서 신성시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성서라는 점에서 기본적인

상황이 다른 종교건물과는 다르다」.<sup>27)</sup>

유대교의 회당은 성경을 배우는 소규모 교실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교회는 성도의 교통으로서 靈의特性이 앞선다. 이러한 영성은 회중의 규모나 이로 인한 예배실 규모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회중이 지나치게 많아질때 거기엔 교회의 純粹性이 저하될 요소가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또 청각적인 공간만을 지나치게 극대화시킨다면 시각적인 공간에 문제가 발생한다. 성례 역시 설교와 조화를 이루어 예배실은 성경을 교육하는 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聖徒의 交際(communion of saints)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란 면도 考慮하고 이런 總體的인 概念으로 진정한 예배가 드러져야 할 것이다. 교회론적 배경에서 생각해 볼 때 교회는 異常肥大化되어서는 안된다고 보는 것이다.

#### IV. 教會施設의 規模와 配置의 基準

한 교회를 구성하는 회중의 규모는 적게는 2~3명으로부터 수백명에 이를 수 있다. 「두 세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sup>28)</sup>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회중의 최소규모를 보여 주는 예이다.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반도(sinai peninsula)에서 40년간 수백만<sup>29)</sup>이 集團移住하는 가운데 超大型教會를 형성했다. 그 때의 성소의 형태는 tent였고 그들의 거처역시 tent였을텐데 이러한 超密集住居地의 community에서 이스라엘은 廣野教會(C-hurch of Wilderness)를 이루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일단의 회중의 규모는 千差萬別일 수 있다.

그러나 모세당시의 광야교회는 성막(Tabernacle)내에서의 레위지파를 중심으로한 제사가 그 예배의 根幹을 이루었고 회중에 의한 참여는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1973년 여의도에서 있었던 빌리그레함 전도대회와 같은 일

19) 한경철, 「韓國教會成長 어디까지 왔나」(서울: 삼영서관, 1984), p. 137.

20) 전호진, 「現代教會論과 宣敎思想」, 「교회문제연구」第一輯, (1979, 12), p. 20.

21) 교회에 대한 新約聖經의 名稱은 希臘語로 엑클레시아 외에 synagogue란 말도 있다. 이것은 유대인의 宗教的 集會나

혹은 공예배를 위한 集會用 建物, 즉 會堂을 가르킬 때 사용된 말이다. 교회와 교회당을 混同할 때가 가끔 있는데 이런 연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22) 朴亨龍, 「敎義神學」第六卷 「敎會論」(서울: 은성문화사, 1975), p. 18.

23) 上掲書, p. 22.

24) J. T. McNeill(ed.),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3), p. 1014.

25) Assembly of Divines,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Philadel-

련의 대야회집회<sup>26)</sup>의 성격은 지니지 않았었다. 이같은 옥외집회는 이후 한 국교회가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계기가 되었으며 이런 대규모 전도집회는 대실내공간에서의 회집의 가능성까지 더듬게 되었다.

오순절(Pentecost) 성령강림과 함께 신약교회가 세워졌을 때 당시의 기록으로 보면 한번에 각각 3000명과 5000명의 새로운 신자가 교회원이 된 때가 있었다.

AD 1세기경 예루살렘에는 聖殿外에 會堂(synagogue)이 480여<sup>27)</sup>군데 있었고 초대교회는 주택이나 이런 회당에서의 집회가 많았던 점으로 보아 3000명 또는 5000명이 한번에 한공간에서 계속 예배를 드렸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나 그렇다고 소규모 회중으로 회집했을 경우 그 수가 얼마였다고 하는 기록은 신약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다.

說教를 중심한 Protestant Church에서 예배실의 크기를 규정한 예가 있음은 특기할 만한 것이다. 「개신교회가 건축상 단순한 형태를 취하기 시작한 것은 스위스부터였는데 그것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회중에 알맞은 교회를 건축하는데 중점을 두게 되었다. 회중석은 설교대에서 가로는 50feet 세로는 30feet로 규정해서 그 이상 넘지 못하게 제한하였다.<sup>28)</sup>

교인 1명의 점유면적을 약 1m<sup>2</sup>로 볼 때 이 회중석의 규모는 약 150명 정도 내외인 것으로 판명된다. 이것은 16세기의 종교개혁 당시의 기준이다. 그때는 물론 擴聲施設이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보아 肉聲에 의한 설교가 가장 효과적으로 遂行될 수 있도록 勘案한 기준이었을 것이다.

회중석의 적정규모를 산정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참교회의 평가기준중 하나의 항목이다. 참교회란 교회의 본질에 나타났듯이 참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교회와 건실한 성도를 양육하는 교회이다. 教會建築環境을 통하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는 회중의 양보다는 먼저 질에 기초해야 할 것이다. 교회의 가치관 공동체의 수많은 구성원보다는 수는 적더라도 진실한 신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에 있는 것이다. 예배시설의 적정규모는 양보다는 질에 기초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첫째 시청각적으로 양호한 환경을 이루어야 하며 둘째 community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배실은 바람직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지녀야 한다. 이것은 그 실내의 어느 위치에서든지 예배인도자를 주시(주목)하거나 傾聽할 수 있어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知覺反應에 있어 視聽覺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근거하는 것이다. Time Saver Standards에는 예배실내에서의 이같은 視聽覺環境이 중요함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설교를 경청하는 것은 협동적인 행위이다. 牧師는 회중의 반응이 침묵속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자기 설교에 대한 회중의 반응을 注視해야만 한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회중은 牧師를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그들은 설교자의 얼굴표정이나 몸동작(gestures)까지 볼 필요가 있다. 예배실의 뒤에서도 說教者를 주시할 수 있어야 한다.<sup>29)</sup>

Communication의 효과에 있어 단어의 선택이나 음성의 효과를 합한 것보다 상대를 주시하거나 몸 전체로 얘기하는 이른바 「몸 말」의 효과가 더 크다는 사실은 설교 행위에 있어 깊이 고려해야만 하는 사항이다.

개신교의 예배중에 high light는 설교에 있으며 설교는 참 예배와 바람직한 교육과 靈的인 성도의 교통을 모두 가능케 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視聽覺的 기능이 완전히 발휘될 수 없는 공간에서는 교육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여타의 교회의 사명을 적절히 逐行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교회든 信仰告白에 의하여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신자사이의 교제는 이 共同體形成에 큰 역할을 한다. 이 교제는 일차적으로 예배시에 이루어진다. 예배인도자와 회중, 신자와 신자, 하나하나가 하나의 영역에 소속

되어 있다는 실질적인 반응이 예배실내에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동시에 예배드린 회중가운데 서로 모르는 교인이 있다는 것은 완전한 공동체에 이르지 못했다는 증거다. 改新教會에서 예배가 끝나기 전에 뒷 좌석에 앉아 있다가 빠져나가는 신자의 믿음을 指摘하는 예가 있다. 이것은 어떠한 공간에서든 의례히(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뒷좌석부터 자리를 채우는 일반적 傾向과 비슷한 심리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대개 뒷좌석이란 out-sider가 좋아하는 위치인 것이다. 현대사회의 특징은 수많은 群衆속의 외로운 개체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도시의 대형교회안에는 이러한 고립되어 있는 많은 교인이 있는 것이다. 예배가 끝난 후의 인사나 사교실에서의 별도의 모임, 교인들 가정간의 교제는 역시 주요한 커뮤니티 형성요인이다. 그리고 교회에서 형성된 공동체는 교인의 주거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로 파급된다. 그러므로 지역사회는 믿음의 공동체와 상호관련을 갖는다. 이것은 교회시설의 규모나 지역적 배치를 고려할 때 지역사회의 현상을 참고해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의 지리적인 경계, 인구 등은 중요한 요소가 된다.

## V. 結 論

예배실은 교회시설의 기본이며 회중의 예배가 교회의 본질인 성도의 교통을 가능케 하면서 교육이나 기타 교회의 사명을 위해 중요한 예배실의 행위요소인 만큼 그 적정규모를 고려하는 것은 큰 의의를 갖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도시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지역시설 전반에 걸쳐 이용상 큰 문제가 야기되고 커뮤니티의 부재로 인한 사회적인 병리현상이 점차 누적되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교회는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대형교회의 출현이나 교회시설의 지역적 배치에 混亂이 일고 있어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교회건축

phia: The committee on Christian Education), p. 15.

26) Louis Berkhof, A Summary of Christian Doctrines, (Aylesbury, Great Britain: The Banner of Truth Trust, 1938), p. 140.

27) Eugene Raskin, 「建築과 人間」,

崔宗鉉外譯, (서울: 螢文出版社, 1981), p. 44.

Raskin은 會堂建築의 특수한 양식이 發展하지 못한 理由를 이렇게 지적했는데 유대교에서의 “神의 집”은 聖書와 10인의 남자 信者가 모인 곳이면 어느 곳이나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

였다.

28) 마태복음 18:20.

29) 구약성경 민수기 26:51에 보면 당시의 광야교회의 인구를 약 60만이라고 記述하고 있는데 여러면에서 고려할 때 남녀노소를 포함한 實際인구는 수백만에 달했을 것이다.

환경, 특히 예배실내에서의 부적절한 환경은 교인들의 靈的 상태의 貧困을 초래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오늘날 한국의 개신교회는 진정한 마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관해 대단히 회의적인 것이다.

교회의 영성은 회중의 규모나 예배실의 규모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支教會 단위로서는 지나치게 會衆이 많아져서는 안될 것이다. 예배실의 공간적인

특성을 살펴 볼 때 Protestant Church에서 청각적인 요소가 우선인 것은 설교를 중요시한다는 교리적 면에서 습당하나 聖禮를 疎忽히 했다는 면이나 설교자를 주목해야 한다는 면에서 시각적인 조화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양보다 질에 기초를 두고 진실한 성도를 양육하고 참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예배실의 적정규모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

항에 그 산정기준을 두어야 할 것이다.

첫째, 예배시설은 시청각적으로 양호한 환경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교회시설은 바람직한 커뮤니티 조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하에 회중석의 적정규모를 산출할 수 있고 지역사회의 빛으로서의 교회의 배치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30) 1973년 빌리그레함 전도대회때부터 여의도에서 열렸던 여러 차례의 기독교 대중집회는 보통 mega 단위로 통하게 되었다.

31) 한경철, 「韓國教會成長 어디까지 왔나」 (서울: 삼영서관, 1984), p. 72.

32) “教會建築” 「크리스찬大典」, 제3권 「教會編」 文脈編 (서울: 文脈, 1984), p. 489.

33) J. D. Chiara, J. H. Callender (ed.), Time-Saver Standards for Building Types,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80) p. 571.

參 考 文 獻

- |   |   |   |
|---|---|---|
| <p>1) 朴亨龍, 「教義神學」 第六卷 「教會論」, 서울: 은성문화사, 1975.</p> <p>2) 한경철, 「韓國教會成長 어디까지 왔나」, 서울: 삼영서관, 1984.</p> <p>3) 鈴木成文外, 「建築計劃」 金光文外譯, 서울: 兄弟社, 1977.</p> <p>4) Raskin, Eugene, 「建築과 人間」 崔宗鉉外譯, 서울: 螢文出版社, 1981.</p> <p>5) 전호진, “現代教會論과 宣教思想”, 「교회문제연구」 第一輯 (1979. 12), p. 20-46.</p> <p>6) 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 「人間/環境 問題의 發見」, 서울: 1975.</p> | <p>7) 「信仰世界」 (1982. 4), p. 70~77.</p> <p>8) “教會建築” 「크리스찬大典」 第3卷 「教會論」, 서울: 文脈, 1984. p. 486~505.</p> <p>9) 內務部, 「地方行政區域要覽」, 1983.</p> <p>10) Assembly of Divines,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Philadelphia: The Committee on Christian Education.</p> <p>11) Berkhof, Louis, A Summary of Christian Doctrine, Aylesbury, Great Britain: The Banner of Truth Trust, 1983.</p> <p>12) Chiara, J. D., Callender, J. H. (ed.),</p> | <p>Time-Saver Standards for Building Types,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80.</p> <p>13) McNeill, J. T. (ed.),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3.</p> <p>14) Snyder J. C., Catanese, A. J., Introduction to Architecture,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79.</p> <p>15) Time, May 7, 1984, p. 62-63.</p> |
|---|---|---|

\* 이 論文은 1983년도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 되었음.

한발양보 거리질서 한발빠른 선진조국